

90年代 經濟環境變化와 保險戰略

宋 基 澈

(高麗大學校 教授・經濟學博士)

1. 90年代의 뜻

세상만사 모든 존재에는 고비가 있다는 말을 자주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고비를 자주 아홉 고비로 비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고비에도 아홉고비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기도 한다.

한국의 최근세사를 두고 볼 때에도 예외없이 이 아홉수를 겪었으니 돌이켜 보건대 1910년의 한일합방, 1919년의 3.1만세사건, 1929년의 세계대공황, 1939년의 제2차 세계대전발발, 1950년의 6.25, 1960년의 4.19, 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1972년의 유신체제와 8.3조치, 1979년과 80년의 제2차 석유파동, 10.26사태와 12.12사태 그리고 광주사태와 5.18 계엄령, 냉해에 의한 대홍작 그리고 1989년과 90년의 급격한 저경제성장과 물가불안과 국제수지적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런 9고비란 어려운 전환기적 시련을 겪는 사이에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가치관들이 많이 변해 양적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는데 이것은 생·손보에 있어

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전환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90년대는 더 나아가서 21세기를 맞음과 아울러 20세기를 청산해야 한다는 이중, 삼중의 큰 시대전환적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뜻에서 90년대란 단순한 연대적 전환일 뿐만 아니라 20세기를 청산하고 21세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3중적 뜻을 갖는 연대임이 특기되어야 한다.

2. 90年代의 經濟環境變化

「내일 이야기를 하면 개도 웃는다」고 하는데 격변하는 90년대를 이야기 한다는 그 자체가 우수팡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그것이 경제이다 보니 경제는 정치, 사회, 기술 등 국내외에 걸친 많은 환경측면에서의 변화에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제의 앞날을 내다보는 예측이 거의 백발백중 틀려먹었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이들 국내외에 걸친 정치 사회 기술 등 여러 환경변화를 배제하면서 경제예측을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국내외에 걸친 정치 사회 기술등 환경변화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제정치적으로 볼 때에 이념의 시대에서 벗어나 국제화, 민주화, 경제화, 군축화라는 경향을 보일 것은 뻔하다. 즉 종전의 자본주의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간의 미·소중심의 냉전시대를 청산하고 이제 「이념의 시대」는 가고 「경제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공산주의사회는 공산주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로되 자본주의경제의 장점과 공산주의의 장점을 접목시켜 인권위주, 민주화위주, 경제위주의 사회자본주의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자본주의사회도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되 사회주의의 장점을 접목시키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이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의 전환기적 혼란이 예상되기도 하며, 또한 동질적 부분의 발견, 개발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EC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그의 동구권흡수와 소련경제와의 접목으로 거대한 단일 구라파경제권의 등장을 생각할 수 있다. 군축의 진전과 결들여 그들의 경제력이 인구의 증대, 구매력증대, 생산력증대로 이어져 방대한 경제권이 형성되고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통일 독일을 중심으로 한 구라파경제권,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세아일본경제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메리카경제권이란 삼각경제권의 정립이 예상된다. 그들 경제권내에서의 블록경제의 강화와 결들여 그들 경제권내에서의 소블록경제의 성행 그리고 이들 3대경제권 사이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세제는 범태평양 경제권의 형성 발전과 또 범대서양경제권의 형성 발전, 이들 두 경제권의 경합 역

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네제는 최후의 냉전시대인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통일까지는 어려울지 모르나 여러 각도에서의 남북교류가 증진될 것만은 뻔하다. 남북통일에 있어서 독일방식의 적용은 본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더 많은 시간과 절차와 실경이가 전개되면서 점진적 접근방향이 될 것은 뻔하다.

다섯째는 민족문제의 폭발로 연방체제의 붕괴 내지 완화현상이 전개될 것이며 이에따라 자치권을 가진 민족국가와 같은 소규모 국가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정치적변화를 배경으로 해서 경제환경도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니 우선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이 전세계를 휩쓰는 보편화 현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적 균형원리가 소멸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며 그 나름대로 신장하면서 경제화, 교류화, 인권화, 경쟁화가 두드러질 것은 뻔하다.

둘째는 공간적, 이념적, 제도적 운용면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장벽이 종전보다 많이 허물어져 지구화, 세계화, 국제화하는 경향이 높아지며, 이에따라 국제교류는 자본, 기술, 인력, 관리, 상품과 서비스, 원자재등 여러 측면에서 확대될 것은 뻔하다. 이것은 교통혁명과 통신혁명의 진전에 의해서 더욱더 촉구될 것은 뻔하다.

세제는 기술혁신의 템포가 빨라짐에 따라서 이념시대에서 경제시대로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술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세계의 산업구조는 말할 필요도 없이 1차산업 즉 농·어·임·축산업의 비중이 크게 축소될 것은 뻔하다. 그렇다고 해서

1차산업이 중요치 않다는 뜻은 결코 아니며 다만 1차 산업이 변질되어 그에 종사하는 인구와 경제상에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것이 뻔하다는 뜻이다.

이리 본다면 제2차산업 즉 생산산업의 비중이 커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산업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은 뻔하다. 우리만 하더라도 산업 인구의 26% 정도의 비중 밖에 되지 않으며 그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차산업은 기술혁신의 템포가 빠르므로 인해서 종전의 성장산업 성장상품이 계속 성장산업 성장상품이 될 수는 없으며 이것은 기술혁신이 이를 가속화 시키고 이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응하느냐가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제3차산업의 비중을 크게 하며 이에 우리나라도 정보사회에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52% 이상을 차지하고 90년대에 있어서 그 비중은 점점 커질 것은 뻔하다. 이와같은 3차산업의 비율증대는 시대적 대세 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3차산업의 비대화가 1차산업과 2차산업 특히 2차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주는 2.5차산업적 성격 즉 2차산업의 경쟁력과 체질을 강화시켜주는 서비스산업이 되어야지 2차산업에 기생하거나 그의 「등을 쳐서」 2차산업을 약화시키거나 그의 체질강화에 도움을 조금도 주지 못하는 서비스산업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은 뻔하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 보험산업의 앞날을 내다 보면 그 방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은 뻔하다. 오히려 보험산업이 2차산업을 선도하고 이끄는 방향에서 그 위상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네째는 현실적으로 경제를 이끄는 것은 정부, 기업, 근로자 일반대중으로 볼진대 이들간의 의식구조변화와 구조변화가 두드러져 국가 연합기구의 발

언권증대와 다국적기업의 비중증대 그리고 물이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듯이 근로자의 유리한 지역, 국가, 기업으로의 유입 활동이 두드러질 것은 뻔하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보험업계에도 주목되어야 할 하나의 경향임은 뻔하다.

다섯째는 기업경영적으로 볼 때에는 경제력집중을 바탕으로 독과점체제가 한편으로 강화되면서 자율화 추세에 따라 국내외에서의 신설사와의 사이에 국내외에 걸친 경쟁이 격화되면서, 적자생존의 원리원칙에 따라 기업 부침현상이 두들어질 것은 뻔하다. 특히 서비스산업과 1차산업에서의 그것은 더욱 심할 것이며 이것은 종전에는 GATT에 의해서 제조기업의 개방화 경쟁촉진에 전력했었지만 이제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이 제조기업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그 정책방향을 1차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돌렸고 그외 집중표현으로 볼수 있는 우르과이 라운드(UR)의 협정체결이 될 것으로 보여져 이 현상은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에 있어서 일반화되어 생존경쟁은 더욱 더 심해질 것이 예상된다.

여섯째는 사회적으로 볼 때 가치관의 다원화로 다원사회화해 가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욕구가 분출되어가고 있다. 집단지향적이기 보다는 개인지향적으로 그것은 집단이기주의화 즉 소집단개인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져 그들의 이해절충에 큰 애를 먹을 것으로 보여진다. 민족주의 보다는 국제주의를 추구하지만 또 한편으로 철저한 민족주의 추구라는 이율배반적 현상도 보일 것은 뻔하다. 이것은 한편으로 집단화를 추구하면서 개인화를 추구하는 경향에서 이를 엿볼 수 있기도하다.

남성지상주의에서 여권신장주의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위치가 향상 내지는 균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보험산업에도

우면과위가 커져갈 것은 뻔하다. 대가족중심에서 핵가족중심으로 옮겨감에 따라 대가족중심의 사회보장 혹은 자가보장중심의 체제에서 핵가족중심보장제도로의 이행으로 자연히 자기보장, 직장보장, 국가보장이라는 3층보장의 기초를 견고히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기책임하의 보장, 자기가정중심의 가정보장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종전의 직장중심주의에서 가족지상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져 「마이·홈」 주의가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이의 장점도 적지 않으나 이에따른 단점 역시 적지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가족중심, 가정중심의 보험산업이 불가피하고 보험도 가족중심을 지향할 수 밖에 없다.

근검절약주의에서 적당히 향락유락주의로 나가고 있다. 적당히 일하면서 적당히 엔쏜이 하자는 흐름은 레포츠산업의 발전과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의한 위험에 대한 준비를 증대시키고있다. 미래지향에서 단기적, 순간적 사고로의 이행은 즉시이득을 중시하고 있으며 권위에 대한 반발로 권위가 저하하고있다. 그리고 탈렌트 지향적 풍조를 보이고 있으며, 세대간에 현저한 가치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비생활에 있어서의 개성중시, 생활에 있어서의 정신적 만족중시, 유희심의 중시와 심미적 가치관 중시 등으로 위락주의 생활의 양풍화, 스포츠 취미에의 관심 증대, 생활에 있어서의 다목적 지향(음악, 외식, 여행, 운동, 오락 등) 등의 풍조는 가계산업예산에 있어서의 서비스지출을 늘리고 이에 서비스산업 발달과 복지사회간접자본의 예산 구성을 늘리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노동시간의 단축화와 힘드는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 사회적으로 스타일 구기는 일 등 육체노동의

기피현상, 정년연장현상, 노조의 발언권증대, 출생율저하, 고령화사회의 도래, 세계인구증가 및 인구의 도시집중, 소비자 운동의 강화, 경영권력에 간섭, 경영참가, 인간소외초래 등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와 기업 혹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희박해지고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보험산업과 보험기업경영을 어렵게 하거나 고충을 더해 줄 것으로 보여진다.

전쟁에서 평화로, 경제성장에 대한 가치부여의 변화는 균형성장 혹은 안정성장 또는 복지성장적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익개념의 변화, 기술과 성장에 대한 불신, 경영권의 논리성에 대한 의문증대, 효율개념의 변화, 집권화에서 분권화로, 공기업 보다는 사기업을, 관념론에서 실용주의로, 절대적 도덕규범 보다는 즉시상황적 윤리로 도덕적 관념의 변화와 윤리관 및 가치기준의 다양화현상을 보이는 등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90년대는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여간 이들 각 분야별 환경변화와 겹들여 생산주도형 경제에서 소비주도형 경제로 이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저율경제성장을 보일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국가격차, 지역격차, 산업격차, 기업격차는 증대하는 것 같다. 그리고 경기침체하의 물가상승이란 스태그플레이션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농·수·축·임업과 광업,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역피라밋현상을 크게하는 산업구조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외환시장변동이 심하며 국제통화의 일부국가에의 편중현상도 엿보이며 이에 무역마찰현상도 보이고 있다. 개발도상국가들의 진출 노력도 커지고 있으며, 국제적인 인플레이현상과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비중도 커질 것이 예상되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국제정치적으로는 천연자원이 국제전략상 중요성이 증대하고, 평화무드에도 불구하고 국지적 분쟁의 증가란 관점에서, 전술적 차원에서 방위문제가 중요성을 갖게되며 제3세계의 발언권이 증대할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사회주의국가 진영과 그 내부에서의 갈등도 증대할 것이며 영역경제수역확대와 인근 제국가간의 협력증대를 모색하는 EC블록화와 같은 블록화 역시 확대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보수·혁신대립이 두드러질 것이며 남북통일 문제를 에워싼 여러 복잡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여진다.

공적 기업, 대기업의 경영이념에 대한 비판이 강렬해지고,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불만족감이 두드러질 것이며, 경영책임을 강화하라는 소리도 높아질 것이 예상되기도 한다. 한편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비판도 강력히 나오고 기회, 성과, 취업, 부 등의 평준화사회를 촉구하는 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의 단적인 예는 중산계층이 두터워지고 있음을 뜻한다.

3. 90年代 保險産業의 成長展望

그러면 90년대의 우리 보험산업은 개방화와 국제화가 그의 한 특징이라고 할진데 2천년의 우리 서비스 및 기타산업분야는 59.1%(1988년은 46.0%)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곁들여 인구 및 가족구성의 변화(인구의 노령화, 핵가족화, 의식 및 생활양식의 다양화) 교육, 노동 및 고용의 변화(교육의 다변화, 취업구조변화)와 사회보장제도 확충, 정보화 및 모토라이제이션의 확대, 소비자보호운동의 확산 등의 사회적 환경변화가 예상된다. 경제규모의 확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다변화

(고기술 산업부문의 발전, 기계공업기술의 선진화, 중화학공업화, 문화산업의 부상 등), 경제의 자율화 및 금융의 국제화(경제의 자율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 경제의 서비스화 및 소프트화)등의 경제적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보험산업은 계속 신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런 환경배경을 기반으로 보험감독원은 우리 보험산업의 성장전망을 <표1>과 같이 보고 있다. 이에 의하면 2천년의 보험료는 46조1,236억원(생보 31조8,312억원, 손보 14조2,924억원) 총자산 84조1,017억원(생보 63조6,571억원, 손보 20조4,446억원), 운용자산은 79조 7,974억원(생보 61조3,973억원, 손보 18조4,001억원)으로 운용자산율은 생보 96.5% 손보 90.0%로 합계는 94.9%로 되어있다.

감독원의 평균성장율 전망을 보면 <표2>와 같다.

이에 의하면 90년대에 생보의 평균보험료성장율은 8.99%, 손보 18.03%, 보험산업은 11.04%, 평균총자산성장율은 생보 10.02%, 손보 18.40%, 보험산업 전체로는 11.52%로 되어있다. 한편 평균운용자산 성장율은 생보 10.02%, 손보 19.27% 보험산업 전체 11.54%로 역시 높은 성장율을 전망하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비교적 우리 보험산업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일 이야기를 하면 개가 웃는다 고하며 이 글을 쓰고있는 순간에도 지금 쿠웨이트를 이라크군이 침공해서 이 사태가 오래 끌것 같다며 제3차 석유파동이 일어난다고 야단법석인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석유사태가 악화될지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앞으로 10년 후의 우리 보험산업 앞날을 정확하게 내다보리라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기

<표-1>

保險料 및 保險資産 成長展望

(단위: 십억원, %)

구 분		1975	1980	1985	1988	1990	1995	2000
보 험 료	생 보	66.5	603.6	3,987.3	9,371.6	13,457.6	21,771.1	31,831.2
	손 보	74.3	387.7	1,016.6	1,898.6	2,723.0	6,160.7	14,292.4
	계	140.8	991.3	5,003.9	11,270.2	16,180.6	27,931.8	46,123.6
총 자 산	생 보	105.5	988.8	6,921.5	17,055.0	24,491.5	41,750.4	63,657.1
	손 보	101.3	607.9	1,236.0	2,633.3	3,777.5	8,676.5	20,444.6
	계	206.8	1,596.7	8,157.5	19,688.3	28,269.0	50,426.9	84,101.7
운 용 자 산	생 보	97.9	947.8	6,696.1	16,492.1	23,622.1	40,268.3	61,397.3
	(운용율)	(92.8)	(95.9)	(96.7)	(96.7)	(96.5)	(96.4)	(96.5)
	손 보	66.5	346.2	804.7	2,157.0	3,158.7	7,524.3	18,400.1
	(운용율)	(65.6)	(57.0)	(65.1)	(81.9)	(83.6)	(86.7)	(90.0)
	계	164.4	1,294.0	7,500.8	18,649.1	26,780.8	47,792.6	79,797.4
	(운용율)	(79.5)	(81.0)	(92.0)	(94.7)	(94.7)	(94.8)	(94.9)

자료: 보험감독원, 2000년대의 보험산업전망, 1990. 4. p. 55

<표-2>

保險料 및 總資産의 平均成長率展望

(단위: %)

구 분		평 균 성 장 율					
		1976~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1991~2000
보 험 료	생 보	55.45	45.88	27.54	10.10	7.89	8.99
	손 보	39.16	21.26	21.78	17.74	18.33	18.03
	계	47.75	38.24	26.46	11.54	10.55	11.04
총 자 산	생 보	56.45	47.58	28.75	11.26	8.08	10.02
	손 보	43.10	15.25	25.04	18.09	18.70	18.40
	계	50.50	38.57	28.22	12.27	10.77	11.52
운 용 자 산	생 보	57.47	47.85	28.68	11.26	8.80	10.02
	손 보	39.09	13.38	31.45	18.96	19.58	19.27
	계	51.08	42.11	28.96	12.28	10.80	11.54

자료: 보험감독원, 2000년대의 보험산업전망, 1990. 4. p. 56

때문에 더 더욱 앞으로 10년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시나리오」를 여러개 만들어, 예컨대 낙관시나리오, 중립시나리오, 그리고 비관시나리오를 만들어 그에 따른 환경변화에 맞추어 보험산업의 주기전략, 산업전략, 기업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타당성이 있다.

4. 90年代 保險産業의 國際戰略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우리 보험산업의 양적 성장과 곁들여 우리 보험산업의 질적 향상이 있어야 하겠는데 이를 위한 국가전략과 산업전략 그리고 기업전략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국가전략으로 볼진데 세계경제가 개방화, 국제화, 지구화의 방향으로 나가고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물론 국지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폐쇄화 혹은 보호화하는 지역이나 국가가 나타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는 어디까지나 개방화, 국제화, 지구화 방향으로 줄달음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80년대 초에 생각했을 때 소련이나 중공 혹은 동구라파의 여러나라들과의 개방화 국제화를 감히 상상할 수 있었던가를 깊이 관련지워서 생각해 보면 능히 알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것은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도 그 변모상황을 엿볼 수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쌀·보리의 이중곡가제가 폐지되고 백화점에는 수입농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국내 금융보험 증권시장은 미국, EC, 일본등 우세한 자본과 선진경영기법을 바탕으로 한 외국기업들에 의해 완전 장악될지도 모른다. 우리 생활에 이

처럼 심각한 영향을 끼칠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타결될 지 알 수 없으나 지금 각국이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있다.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중 주요핵심을 이루는 서비스업 산업 중에서도 금융분야는 선진국들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분야이다. 금융산업에 관한 한 미국과 서구 등 선진국은 어느 분야보다도 우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산업의 개방 및 자유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중의 하나이다. 이와같은 선진국의 지위는 거꾸로 말해 개도국 금융산업의 절대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선진국들이 모든 금융산업의 개방, 자유화를 내세우는데 반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금융산업이 갖고 있는 취약성, 공공성, 국가경제정책에 통화신용정책이 갖는 중요성들을 들어 점진적인 자유화와 개도국에 대한 「보다 많은 예외」의 인정을 요구, 아직껏 진전은 없는 상태로 선진국에 유리한 쪽으로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86년 이후 국제수지 흑자전환으로 여건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상태에 있고 금리 자유화나 외환, 자본거래의 자유화가 완전치 못해 선진국의 요구를 선뜻 받아 들일 수 없는 형편이다. 더군다나 90년 들어 국제수지도 적자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쿠웨이트 사태 여하에 따라서 92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사회경제개발 5개년계획도 전면 수정을 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다만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방전략이 지속되는 한 금융산업개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판단이어서 국내금융산업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여간 정부는 취약한 개발도상국입장이 협정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개도국들과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앞으로 구체적인 자유화 계획의 협상에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쌍무협상의 경험을 살려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국내영업규제의 완화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미 발표한 자본시장 자유화계획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되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연구기관, 학계가 공동으로 금융산업별 실무대책만을 구성, 운용하고 금년말까지 장·단기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부방침에따라 보험정책당국도 우리 보험산업의 자유화, 국제화, 지구화에 따른 장·단기적 국가전략의 장단기 비전과 계획을 수립, 공표해 주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생각되는 것은 미국을 위시한 EC 그리고 일본등 선진국의 국내진입기업에 대한 전략을 수립,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적지 않은 미국보험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보험기업의 진출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인지, 이 정도 선에서 동결하는 것인지, 앞으로도 선별 허용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또 EC지역의 여러 국가의 보험기업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일본 보험기업에는 어떤 정책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면개방이나? 단계적 개방이나? 그 정도와 그에 따르는 이론적 근거 등등 문제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내국인에 대한 개방은 어떻게 되

는 것이고 그들간의 합작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의 원칙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이들에게 설립이 개방된다면 설립요건이 현재와 같아도 되는 것인지 좀 더 강화되어야 하는지 강화된다면 무엇이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또 설립이 많이 개방되더라도 그들의 운용에 대해서는 각별한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외국에 약하다는 말도 있지만 관리감독에 있어서의 차별화는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

둘째는 지금까지 보험거래가 없었던 공산제국, 즉 소련, 중국, 동구라파 제국과의 보험산업의 위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청사진의 제시와 그에 대한 구체적 접근방식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재보험거래의 활성화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세째는 앞으로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는 하지만 남북통일이 이루어져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시나리오 작성과 그의 실천 과업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는 너무나 가변성이 많아 무어라 이야기 하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한 여러 각도의 시나리오 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서독과 동독의 통합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도하나 우리의 남북통일이 독일방식일 수 있는냐를 생각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네째로는 다가오는 EC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보험산업의 전략이 구상 내지 실천단계로 옮겨져야 한다.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통일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EC와 일본을 중심으로 한 극동경제권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미주경제권으로 삼각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불진데 EC경제통합에 대한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뜻이 된다.

다섯째는 앞으로 세계경제는 구라파, 극동, 미주의 삼각경제권을 중심으로 조그만 경제블럭화가 많이 이루어 지면서 그들 경제블럭내의 이익추구에 광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각 소경제블럭과의 관계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는 범태평양 경제시대의 도래와 결하여 이 범태평양 경제시대에 있어서 우리 보험산업의 위상 문제에 대한 다각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외국보험기업을 받아 들이는 수동적 입장에서 일보 더 나아가서 적극적 궁정적으로 해외지역에 진출해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한다는 경영전략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곱째는 90년대에 들어 다국적 보험기업의 우리나라에의 진출 또 우리의 외국진출의 경우 이들 다국적보험기업과의 관계가 더욱 더 증대하리라 보여 지는데 이때에 좀 더 주체적 자세를 갖는 경영전략이 요망된다. 그렇지 않아도 종속이론이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보험기업의 주체성있는 경영전략이 요망된다.

대외적 보험환경 변화에 따르는 국가기본전략과 기업전략이 다각도로 생각되어야 하겠지만 더 크게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은 국내전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5. 90年代 保險企業의 國內戰略

우리 보험기업의 국내 주요환경변화를 몇가지 생 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의식변화에 이어 소득 수준향상에 따라 소비지출의 고도화,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저축도 늘어 금융자산도 급속히 증대한다. 이에따른 생활의식변화로서는 중산층의 의식 증대, 가정생활의 중시, 개성발휘, 삶의 보람추구, 취미·오락생활지향, 레포츠 추구, 자동차 등 내구 소비재의 소비증가등이 보험수요창조와 그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는 책임의식의 변화이다. 책임의식은 정부, 기업, 가정, 개인 모두에게 크게 변하고 있다. 정부의 책임변화로는 복지국가지향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심화라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것은 정당정치의 활성화로 더욱 촉진되고 있으며 국민의 조세부담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이들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민영보험과의 상호 보완이란 점도 있기는 하지만 갈등과 모순이라는 대립 관계에 있는 방향에서 책임의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의식제고는 각자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특히 생산물제조 책임의식 확대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확대를 보이고 있다. 또 각 조직이나 각 개인의 권리이익증대는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혹은 조직과 개인간의 권리주장이 강해져 직업과 관련 그의 서비스를 위한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각종 자격소유자들의 책임의식확대의 제도마련과 운용을 위한 보험산업의 전향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과 개인의 책임변화로 크게 들 수 있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증대, 보완에도 불구하고 개인 가정단위로서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가중으로 그에 대한 보험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구구성도 이제는 고령화되어 65세 이상의 노령층

은 90년에는 총인구의 약 5%에 도달할 전망이다.

인구구성의 고령화, 고령자 가구수증대가 평균수명연장 및 노인복지대비 미비와 노후보장의식을 제고시키게 된다. 이와 겹들여 핵가족화현상이 계속 진행되어 이는 「자기책임의식」을 높이고 있음이 뻔하다.

세째로는 각종 위험증가를 들 수 있다.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도시화현상, 모터라이제이션, 사회간접자본 미비, 공해, 재해발생등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소유대수의 급증과 낮은 교통문화 등으로 경제위기의 대량화, 고액화 등이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불안감을 높이고있다. 자동차보험의 급증이 단적으로 그를 입증하고 있다.

네째는 교육비부담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가계에서 차지하는 몫중에서 교육비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이것이 교육보험의 중대를 가져오는 한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다섯째는 산업사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업 내용변화를 들 수 있다. 출생율저하, 고학력사회화 등으로 노동인구의 신규공급감소로 노동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특히 위험한 일, 더러운 일, 힘든 일, 사회적으로 스타일 구기는 일 등에 특히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노동의 양과 질에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으며 여성노동력, 주부노동력의 활용이 두드러지고 자동화, 기계화 등으로 성인, 성력화 노력이 두드러진다. 하여간 지금 우리는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서비스산업에서의 노동력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OA, FA, HA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두로 노동규율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기업복지가 강화되어 그의 보완을 위해 보험역할이 강화될 수도 있다.

여섯째는 이미 언급한바 있으나 자유화, 국제화의 확대이다. 우리 금융산업 그중에서도 보험산업의 자유화, 국제화는 더욱 더 촉진될 것은 뻔하다. 그것이 촉진되는 주요인으로서 개인 금융자산의 증가 및 다양화와 개인과 기업의 이체감각 고도화 그리고 금융기관의 자금량 증가, 자본시장 개방확대 등에서 온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외국보험기업의 한국진출을 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보험기업의 해외진출도 아울러 뜻하는 것이다. 보험산업은 국민의 대다수를 고객으로 삼아 장기의 무거운 보장책임을 지고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산운용과 지급능력확보제도가 긴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생보기업은 그의 거대한 금융자산으로 거대한 기관투자자로 부상할 것이며, 더 나아가 거대한 금융콘체른으로서 부상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와 아울러 경제적 집중의 대상으로 또한 공정거래법대상으로 문제화될 것이 예상되기도 한다.

일곱째는 경쟁의 격화이다. 세상은 모든 분야가 모두 만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각계각층에서의 상호간 경쟁은 점점 격화될 것이 예상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경제계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서 보험산업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경쟁상대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기존 각사 뿐만 아니라 신설 전국 각사와 지방각사, 그리고 합작각사나 외자각사 등과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뿐만 아니라 생·손보간 체신보험, 각종공제, 은행증권 등 인접업계는 물론 카드업계, 유통업계 등을 비롯한 전산업, 전업계에 이를 것은 뻔하다. 특히 전세계의 선진 다국적 보험기업과의 상업 서비스면에서 경합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더 경쟁에 참여할 기업이 늘어 날 것으로 보여 더욱 더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한다.

여덟째는 소비자의 권리 주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주권의 시대가 되다보니 보험가입자, 혹은 보험종사자, 보험대리점 등 각계의 소집단 이기주의 대두로 권익옹호의 소리는 높다.

이러한 각종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보험산업은 경영의 내실화, 자율경쟁체제강화, 국제화 기반 구축, 가입자 및 관련이해관계자의 권익옹호가 강조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우리 보험산업환경에 비추어 우선 보험감독 당국은 이미 국제전략에서 언급한 자유화, 국제화 전략, 이외의 각종금융기관과의 업무영역에 관한 조정방향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합화나 전문화나 등등이 21세기 구상과 결들여, 금융제도 전반의 구성과 결들여 전세계의 추세적 방향에서 방향전개가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21세기 구상」이란 기본방향 밑에서 90년대의 우리 보험감독, 생·손보산업, 유사보험산업, 보험의확단체, 보험산업교육, 보험홍보 등의 여러 문제가 구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기업 내부문제로서의 조직, 인사, 영업, 상품개발, 재무부문의 자산운용과 사무자동화문제 등이 앞으로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장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도 북방정책과 관련된 사회주의 제국가와의 문제, 그리고 남북통일대비 그리고 EC통합 기타 해외제국과의 보험교류까지를 포괄한 광범위한 「21세기 구상」이 나오되 그것은 90년대를 포함한 것이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기본구상 속에서 90년대에 우리가 생각

해야 할 국내전략을 보건데 우선 격화하는 경쟁에 어떻게 해서 보험료 수입증대를 가져오고, 자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이익을 극대화해서 보험가입자에게로 이익을 돌려 줄 수 있는냐에 전략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보험산업은 사람과 종이의 산업이라 할진데 영업노동력의 공급과 이동 등등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후선업무를 가급적 기계화하고 영업인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영업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 더군다나 영업인력의 스카우트 경향도 두드러지기 때문에 더 더욱 그러하다.

앞으로 자산운영에 큰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투기억제와 증권시장침체가 되어 있어서 투자3분법과 같은 고전적 투자이율이 보험기업에 그대로 해당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더군다나 세계개혁이 이루어 지게 되어있는데 보험자산 운용면에서 세계가 유리하게 개혁되리란 전망이 없기 때문에 더 더욱 그러하다.

앞으로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동차 증가와 결들여 자동차 위험증가로 우리 자동차보험은 지금 난국이 아니라 위기국면에 와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자동차보험산업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하여간 90년대에 우리의 모든 분야는 획기적, 과도기적 변혁을 가져올 것이 보여진다. 이것은 보험산업도 예외가 아니며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총론을 바탕으로 각 부문의 각론에도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